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남부권역 4개 공단과 업무협약

—사회적가치 창출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지난 7월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공단 CEO 강연 간담회에서 남부권역 4개 공단(광산, 달성, 기장, 포항)과 상호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협력,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교류,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등이다.

정학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단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공단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한장희 교수의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강연 및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탁월’

—주민만족도 낮은지역 원인분석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여수시의 2018년 상반기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90.31점으로 최고등급인 ‘탁월’ 판정을 받아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20명을 구성해 주택·상가지역, 차고지, 환경사원 휴게실 등을 직접 방문 평가하고, 주민 980명을 대상으로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종합만족도 제고에 대한 청소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공단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현장평가 점수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상승하여 대행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하절기 쓰레기 냄새 등 악취 발생으로 주민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하락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평가점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종량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등 쓰레기 감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혹서기 직원 건강관리 만전

-현장 근무자 휴게시간 조정, 냉차제공 등-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근무에 여념이 없는 현장 근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단은 혹서기 폭염에 의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환경사업소 중식 휴게시간을 기존 1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30분 연장하고, 환경사업소의 소각시설 기계실 내부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작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냉차 및 식염



포도당을 제공하여 무더위로 일어날 수 있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더위는 낮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우며 유난히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피서철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예비차량 운행 적치된 쓰레기 신속히 수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피서지에 대해 피서철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등에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비차량을 운행하는 등 적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번영회와 협조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시 도시미화과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피서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결한 여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광객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사업소, 계근시설 정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차량계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근시설을 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한 시설은 로드셀(Load Cell)로 계근 시설 상판에 가해지는 하중의 변화량에 따라 내부 저항장치를 통하여 출력되는 전압의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4일 동안 진행된 보수공사로 차량의 혼잡을 우려하였으나, 우리 공단 수거차량 및 환경사업소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다.

환경사업소장은 “이전보다 더 정확한 계근을 통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고, 소각시설 저장조의 보관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